



하루에 하나

2026.7.8

JULY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원/달러 환율

1,526.80원 (-3.70원)

KOSPI

7,656.31 (-395.02, -4.91%)

KOSDAQ

831.33 (-15.84, -1.87%)

국고채 10년 금리

4.213 (+0.010%p)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Global Asset Strategy

CrediVille	2026년 상반기 크레딧 시장 리뷰 및 하반기 조망 [김상만]
New K-ETF	미국 우주TOP2 채권혼합50, K방산 TOP5+ [박승진]
실전 퀀트	미국 스타일 전략: '호실적' 주의보? [이경수]
해외채권	글로벌 아웃라이어, 일본 채권 [허성우]
주간 강테마	AI: 흔들림을 실적으로 증명할 시간 [강윤형]

기업분석

삼성전자	메모리 이익 체력 확인. 실적 상향 여력 충분 [김록호]
코스맥스엔비티	확연히 달라지는 실적 [박종대]
인텔리안테크	건고한 실적 성장 대비 최근 주가 조정은 과도한 수준 [한유건]
LG에너지솔루션	하반기 회복세 지속 전망 [김현수]
LG전자	하반기 신사업 모멘텀 기대 [김민경]

산업분석

자동차	어질리티 로봇틱스가 SPAC 상장 추진 [송선재]
미디어	업황의 바닥이 다가오고 있다 [이기훈]
운송	6월 인천공항 수송실적: 3분기에는 맑음 [안도현]
증권	2Q26 Pre - 예견된 어닝 서프라이즈 [고연수]

단기투자유망종목

삼성전자, 삼성물산, KB금융,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삼성중공업, 삼양식품, 키움증권, 코스맥스, 이수화학

2026년 7월 8일 | Global Asset Research

Credit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CrediVille

2026년 상반기 크레딧 시장 리뷰 및 하반기 조망

하반기 크레딧 시장 상황, 시간을 두고 점차 안정세에 접어들 전망

다사다난했던 '26년 상반기가 마무리되었다. 당초 올해 상반기는 이른바 공적채권의 수급 부담을 안고 시작되었지만 그래도 연초에는 그 같은 우려를 딛고 강세 흐름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던 것이 주식시장 호황 등에 따른 머니무브 현상이 발생하면서 생각지 못한 폭락을 만나게 되었고 일반기업들 또한 채권 발행 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표류하는 장세가 지속되었다. 그 결과 통상 연초에 발생했던 연초효과는 미처 발현되지도 못한 채 신용스프레드가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다. 2분기 들어서는 중동사태의 부정적 여파를 무난히 소화해내면서 강세 전환을 시도했지만 그 지속성에는 한계가 있었다.

한편, 4월 말 제이알글로벌리츠의 신용이벤트가 발생하였고 2달도 채 지나기도 전에 중앙미디어그룹 신용이벤트가 발생한 점은 크레딧 시장에 추가적인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물론 이슈가 발생한 영역이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관여도가 낮은 영역이기에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그렇다고 아무 일 없었다는 식으로 넘어가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배경하에서 기업들의 단기조달 의존도는 심화되었다. 물론 단기차입 증가는 이례적으로 확대된 장단기 금리차 또한 그 배경이 되고 있다. 즉, 기업들은 상황적 제약요인을 차치하더라도 필요에 의해서도 단기조달을 늘릴 유인이 증가한 것이다. 단기 시장성 조달 이외에도 기업들의 자금조달을 도운 영역은 은행 대출이었다. 대출금리 또한 회사채 금리에 비해 상대적 메리트가 발생하면서 단기조달과 마찬가지로 필요에 의한 대출 조달 유인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회사채의 발행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부담은 하반기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반기에 발행 진도가 미진했던 첨단전략산업기금의 메가프로젝트관련 투자집행이 본격화될 것이고 여타 공적영역의 발행 또한 예년에 비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통상 하반기에 만기집중도가 높았던 은행채의 경우 상반기 대비 만기도래 규모가 부담이 예년에 비해 크지 않은 점은 부담 경감요인이다. 다만, 수급적인 요인보다 더욱 중요한 하반기 관전 포인트는 상반기에 발생한 2번의 신용이벤트를 크레딧 시장이 어떻게 소화해 나갈 것인지에 달려있다. 2010년대 초반 유럽 재정위기 시기에 발생했던 국내 중견그룹 구조조정 이후 이처럼 짧은 기간에 신용이벤트가 연달아 발생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CrediVille의 관점에서는 국내 크레딧 시장의 규모나 펀더멘털을 감안할 경우 이 같은 이벤트를 충분히 감당할 체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그것을 어떤 경로로 어떤 식으로 해결해나가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관찰 기간이 요구되고 확인할 시간이 필요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하반기 접어들면서 바로 안정세로 전환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점차 안정세로 전환되는 것을 기본 시나리오로 상정한다. 무엇보다도 연초 대비해서 출발선상에서의 부담이 적다는 점 또한 작용할 것이다. 상대적으로는 초우량물이 먼저 안정세를 찾은 이후에 점차 아래 등급으로 확산되어 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Analyst 김성만 credinal@hanafn.com
RA 김기범 kbkim1@hanafn.com

2026년 7월 7일 | Global Asset Research

Global ETF

Compliance Notice

본 조서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New K-ETF

미국 우주TOP2 채권혼합50, K방산 TOP5+

신규 상장 ETF(7/7)

- KIWOOM 미국 우주테크TOP2 채권혼합50, ACE K방산 TOP5+

KIWOOM 미국 우주테크TOP2 채권혼합50: 우주산업을 대표하는 2개의 미국 기업들과 국내 채권을 함께 편입하는 채권혼합형 ETF이다. New Space 시대를 이끌어 가는 우주 대표 기업들의 주식 포지션은 SpaceX와 RocketLab으로, 안전자산인 채권 포지션의 경우 잔존만기가 1년 이하인 국고채와 통안채를 활용하여 구성한다.

상업용 로켓 발사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 우주 대표 기업들과 금리변화에 의한 가격변동성이 제한적인 단기 채권의 활용하여 만들어진 채권혼합형 ETF 종목이 되겠다.

시가총액 기준과 'Space Technology'의 키워드를 활용한 LLM 모델을 통해 선정된 두 종목들은 각각 25%씩, 총 50%의 비중으로 편입한다. 나머지 50%는 잔존만기 4개월~1년의 국고채와 잔존만기 1개월~1년의 통안채 10개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주식과 채권을 50:50 비중으로 배분하는 구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채권혼합형 ETF로 분류된다.

주식 포트폴리오의 정기 리밸런싱은 미국 증시의 매월 마지막 거래일에, 채권 포트폴리오는 매월 첫번째 거래일에 진행한다. 채권혼합형 ETF로 분류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퇴직연금 계좌에서 100%의 비중(안전자산으로 분류)까지 채워 넣을 수 있다. 0.21%의 총 보수가 적용되는 패시브 ETF이다.

ACE K방산 TOP5+: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10개의 주요 방산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집중형 패시브 ETF이다. 시가총액 기준과 'AI Defense'의 키워드를 LLM 모델에 반영하여 편입 대상 종목들을 추려낸다.

유동시가총액과 키워드 기반의 스코어링 상위 5개 기업들은 Top5 포지션으로 분류하고, 이들 다섯 개 기업들에 대해서는 합산 기준 80%의 비중으로 포트폴리오에 편입한다. 이어 Top5의 포지션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다섯 종목들은 총 20% 내에서 개별 편입 비중을 배분(상기 스코어링 기준 반영)하게 된다.

상장일(7/7) 기준 포트폴리오의 경우 LIG 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한화시스템이 TOP5 종목의 포지션에 자리하고 있다,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은 연 4회(1월/4월/7월/10월)에 걸쳐 진행한다. 각 기업들의 개별 편입 비중은 매년 분기말 거래일에 결정되며, 실제 조정작업은 편입비중이 결정된 날로부터 10거래일 후에 반영된다. 개별 종목의 최대 편입 비중을 20%의 Cap Rate으로 제한한다. 총 보수는 0.45%가 적용된다.



Global ETF 박승진 sj81.park@hanafn.com
RA 신민건 mingun.shin@hanafn.com

도표 1. KIWOOM 미국 우주테크TOP2 채권혼합50, ACE K방산 TOP5+ ETF의 종목 개요

ETF명	KIWOOM 미국우주테크 TOP2채권혼합50	ACE K방산TOP5+
상장일	2026년 7월 7일 화요일	2026년 7월 7일 화요일
기초지수	Akros 미국우주 Top 2 채권혼합 지수	KRX K-AI 방산TOP5+ 지수
복제방법	실물(패시브)	실물(패시브)
1좌당 가격	10,000원	10,000원
총 보수	0.21%	0.45%
구성종목 수	12종목 (주식 2종목, 채권 10종목)	10종목
비중결정방식	- 주식(50%): 2개의 종목을 각 25% 편입 - 채권(50%): 10종목 동일액면비중	유동시가총액 + 키워드 가중방식
정기변경	- 주식: 미국 주식시장의 매월 마지막 거래일 - 채권: 매월 첫 번째 영업일	연 4회 (매 1, 4, 7, 10일)

자료: KRX, 하나증권

미국 스타일 전략: '호실적' 주의보?

실전 퀀트 | 2026.07.08

Analyst 이경수 gang@hana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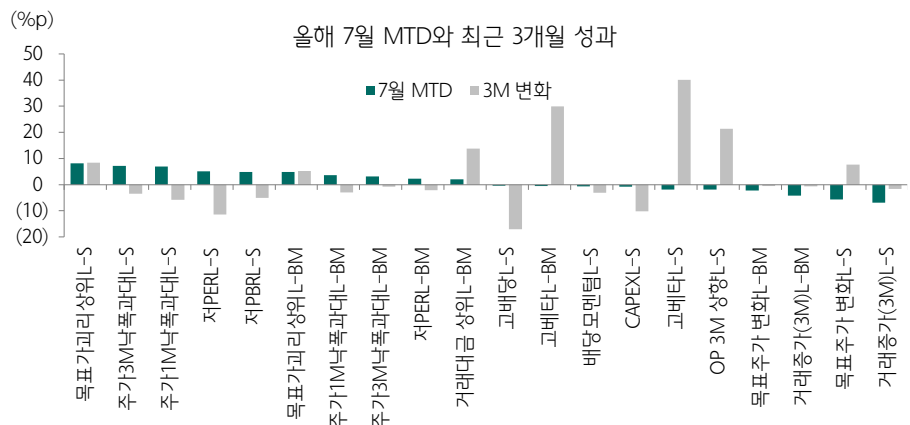
RA 이철현 lch2678@hanafn.com

미국 스타일 전략: 7월 계절성인 '호실적주' 조정, 오히려 기회

MEAN REVERSION의 시기, 다만 결국은 '실적'

- 7월 미국에도 'mean reversion' 계절성이 뚜렷, 상반기 성과 확정 및 하반기 첫 베팅 영향
- 이번 7월 첫 주 수익률 역시 과거 계절성 그대로 답습, 목표가 괴리 상위 및 주가 낙폭과대 등이 강세
- 또 7월 계절성인 OP 상향 팩터(-1.1%) 부진이 이번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중, OP 3M 상향 룡-숏 7월 첫 주 -1.9%(3개월 +21.3%), 최근 실적 상향 최상위인 반도체 업종의 조정 영향
- 목표주가 상향 룡-숏(7월 -5.7%, 3개월 +7.6%) 역시 하락 반전 뚜렷, 이 역시도 계절성과 일치하는 부분
- '호실적' 혹은 '목표가 상향'에 대한 수익 실현 수요가 몰리는 시기, 다만 이익 상향 팩터는 중장기적인 우상향 성과 확인, 7월 '호실적' 종목 조정은 오히려 기회
- 한편, 하반기 성과 상위 키워드는 '내러티브', 거래대금 상위 및 고베타, 목표주가 괴리를 상위, 고배당 등
- 전략 1. 적극적인 로테이션 활용, 과열 종목 정리 및 낙폭과대 종목 트레이딩(단기 전략, 비추)
- 전략 2. 돌고 돌아, 결국은 '실적', 7월 부진한 이익 팩터 저점 매수, 8~12월 수익률 상위권(중장기 전략), 다만 상반기대비 하반기 성과 다소 부진 — Sandisk, Micron, Cenovus Energy, Albemarle, TotalEnergies, HP
- 전략 3. 하반기 성과 상위 팩터인 목표가 괴리 상위 및 거래대금 상위 등에 관심(하반기 계절성에 최적) — IREN, CoreWeave, Charter Communications, Super Micro Computer, Lumentum Holdings, Coeur Mining, Figma, Kratos Defense, IonQ

도표 1. 미국 7월 첫 주 스타일 성과와 최근 3개월 성과 상위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Refinitiv, 하나증권

주: S&P500 상하위 각 10% 동일 가중 룡-숏, 룡-S&P500 월간 리밸런싱

2026년 7월 7일 | Global Fixed Income

Fixed Income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해외채권

글로벌 아웃라이어, 일본 채권

- 장기 금리 급등과 커브 스티프닝을 이끈 주범은 초장기 투자 로드맵과 이에 따른 재정 훼손 우려. 정부가 발표한 부채 비율 안정화 시나리오는 상당히 낙관적인 수준
- 미국과의 금리차가 빠르게 축소됐지만 엔화 약세 지속. 미 연준의 긴축 기조 속에서 엔 캐리 잔존 매력 유지되고 있고, 내부의 재정 불확실성이 더해진 영향
- 외환시장의 핵심 변수는 결국 'BOJ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일본 10년 3.0% 전망 유지

‘금리 급등+엔화 약세’ 조합

6월 중동 전쟁 종료 이후 주요국 금리가 차별화 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일본 장기물 금리는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스프레드 측면에서 일본은 주요국 대비 ‘아웃라이어(Outlier)’ 수준의 일방적인 커브 스티프닝을 겪고 있다. 현재 일본 2/10년은 143bp, 10/30년은 126bp에 달해 주요국 중 가장 가파른 곡선을 형성 중이다. [도표 1~2]

전쟁 종료 이후에만 일본 2/10년 스프레드는 22bp, 10/30년 스프레드는 10bp 확대되며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 대비 가장 큰 폭의 약세를 기록했다. 6월 말 국고 10/30년 스프레드가 23bp까지 벌어진 후 재정부의 초장기물 발행 비중 축소 발표로 소폭 축소되었지만, 일본은 2/10년과 10/30년 스프레드가 동반 확대되며 수급 및 재정 우려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도표 3~4]

장기물 중심의 금리 급등과 커브 스티프닝을 이끈 주범은 다카이치 행정부가 발표한 ‘370조 엔 규모의 초장기 투자 로드맵’과 이에 따른 재정 훼손 우려라는 판단이다. 기술 패권 경쟁 대응과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FY2040까지 14년 간 370조 엔 이상을 투입한다. 이 중 101.6조 엔이 AI 및 반도체 분야에 집중 배정되었다 [도표 5]. 다카이치 행정부는 지난 20년 간 일본 재정 규율의 간간이었던 ‘기초재정수지 흑자’ 목표를 사실상 폐기했다. 대신 ‘명목 GDP 대비 부채 비율’ 관리 체제로 전환하며, 빛이 늘어나더라도 분모(경제 성장)를 키워 부채 비율을 통제하겠다는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선언했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양극화된 모습이다. 주식시장은 성장 중심 정책과 엔저에 따른 수출 호조 기대로 닷케이 지수는 70,000엔포인트를 돌파한 반면, 채권시장에서는 명확한 지원 대책 없는 매년 10조 엔 규모의 추가 지출 발표에 국채 공급 확대 우려가 확산되며 초장기물 매도세로 대응하고 있다. [도표 6]

정부는 이러한 재정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민관 투자가 성공할 경우 TFP(총요소생산성)와 자본 투입이 급증해, 잠재성장률이 현재 0.4%대에서 2036~40년 1.8%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도표 7]



해외채권 Analyst 허성우
deanheo@hanafn.com

2026년 7월 8일 | Global Asset Research

Equity

주간 강테마(신고가로 보는 글로벌 테마)

AI: 흔들림을 실적으로 증명할 시간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주간 테마 리뷰: 경기 방어주 & AI 순환매

지난주 반도체 노이즈가 불거지면서 경기 방어주와 AI 테마주 간 순환매 흐름이 나타났다. DRAM 수출단가 하락과 메타발 CapEx 과잉투자 우려로 방어주가 부각됐지만, 데이터센터 수익화 기대감이 반영되며 AI 테마도 반등했다. 경기 방어주와 AI 테마의 평균 수익률은 각각 +3.40%, +3.59%로 한·미·일 증시 평균 수익률 -0.81%를 크게 상회했다.

경기 방어주는 미국 건강관리, 금융, 리츠, 일본 금융, 필수소비재 중심으로 신고가를 돌파했다. 건강관리는 개별주 모멘텀(모더나 +18%, 버텍스 +7%), 금융은 방어주 성격의 보험주와 스테이블코인 'Open USD'를 출시한 비자(+7%), 일본 금융은 BOJ 금리인상 기대가 동력이었다. AI 테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 발표로 장비주가 신고가를 돌파했으나, 발표 후 차익실현으로 병목이 지속되는 실리콘 웨이퍼, MLCC 등 관련주로 강세가 이동했다.

주간 테마 전망: AI_돌고 돌아 실적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12mf EPS 전망치 상향이 두드러진 테마는 AI다. 5월 말 대비 2차 전지(+7.89%)가 상향폭 1위지만 PER이 큰 폭으로 하락하며 시장 신뢰가 낮은 반면, AI(+6.52%)는 메모리 가격, 기판/MLCC 쇼티지로 가격 인상 기대감, 데이터센터 증설 등 이익 상향 근거가 밸류체인 전반으로 확산돼 지속성이 높다. 메모리/스토리지(+18.95%), 기판/MLCC/전자부품(+13.43%), 데이터센터 인프라(+8.11%)가 AI 테마 EPS 상향을 주도했다.

메모리/스토리지는 가격 인상과 LTA/SCA 확산이 핵심이다. 삼성전자 3분기 DRAM 협상이 전분기대비 최대 +20% 전망으로 TrendForce 예상치(+13~18%)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마이크론은 SCA 최저가에서도 과거 사이클 최고 마진을 상회한다며 이익 가시성을 높였다. 기판/MLCC는 AI 서버향 고부가 믹스 개선과 공급 부족으로, 무라타(+15~35%)를 필두로 평가 인상이 고부가에서 범용으로 확산되며 ASP 상승 기대가 유효하다.

AI 데이터센터 인프라는 AI 서버 증설과 클러스터 대형화로 서버, 네트워크, 광통신 수요가 확대되며 실적 전망치가 상향됐다. 휴렛팩커드는 에이전틱 AI와 추론형 AI 투자 확대로 AI 서버 및 전통 서버 수요가 증가했고, 공급 제약 완화 시 추가 상향 가능성이 부각됐다. 후쿠카와 전기는 광섬유-광케이블 풀가동과 수냉식 모듈 매출 FY30 4,000억엔 가이던스 상향으로 데이터센터 인프라 수요의 장기 성장성이 확인됐다.



Analyst 강윤형 kangyh@hanafn.com

2026년 7월 8일 | 기업분석_Company Memo

BUY (유지)

목표주가(12M) 480,000원
현재주가(7.07) 29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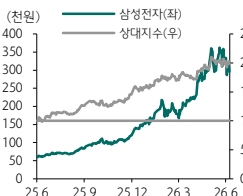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7,656.31
52주 최고/최저(원)	362,500/60,400
시가총액(십억원)	1,730,498.5
시가총액비중(%)	27.62
발행주식수(천주)	5,846,278.6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30,570.9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8,900.2
외국인지분율(%)	46.70
주요주주 지분율(%)	
삼성생명보험 외 15 인	19.69
국민연금공단	7.84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726,616.2	927,219.2
영업이익(십억원)	372,756.8	523,838.1
순이익(십억원)	308,250.2	427,966.1
EPS(원)	45,507	63,710
BPS(원)	107,710	164,677

Stock Price



Financial Data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300,870.9	333,605.9	750,289.7	948,366.9
영업이익	32,726.0	43,601.1	391,641.5	572,981.1
세전이익	37,529.7	49,481.5	396,988.3	578,332.3
순이익	33,621.4	44,261.0	317,829.0	461,450.2
EPS	4,950	6,564	47,646	69,405
증감율	132.29	32.61	625.87	45.67
PER	10.75	18.27	6.67	4.58
PBR	0.92	1.87	2.80	1.94
EV/EBITDA	3.60	7.67	4.18	2.48
ROE	9.03	10.85	54.49	50.74
BPS	57,930	63,976	113,610	163,909
DPS	1,446	1,668	14,850	22,038



Analyst 김록호 rookkim@hanafn.com

삼성전자 (005930)

메모리 이익 체력 확인. 실적 상향 여력 충분

2Q26 Review: 성과급 반영 감안하면 추정치 상회

삼성전자의 26년 2분기 매출액은 171조원(YoY +129%, QoQ +28%), 영업이익은 89.4조원(YoY +1,810%, QoQ +56%)을 기록했다. 성과급 관련 총당금은 1분기까지 반영해 16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총당금 반영을 감안하면, 100조원을 상회하는 호실적이라 판단한다. 사업부별 영업이익은 메모리 91조원, 시스템 반도체 -2조원, 디스플레이 0.3조원, MX/NW BEP, VD/DA -0.2조원, Harman 0.3조원으로 추정한다. 메모리 부분은 하나증권의 기존 전망치와 유사했다. 참고로 하나증권의 가정은 DRAM 가격 49%, 출하 4% / NAND 가격 60%, 출하 2%다. 가격과 출하에 일부 오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유사한 범위 안에서 서로 상쇄할 것으로 추정된다. 시스템 반도체 부문이 성과급 등의 비용 반영으로 인해 예상 -0.5조원보다 적자폭이 컸다. 디스플레이 부문은 계절성에도 불구하고 북미 고객사의 판매량이 견조하게 유지되며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의 이익을 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스마트폰은 갤럭시 S26이 예년보다 늦게 출시된 점과 증거가 내 점유율 확대 정책으로 인해 예년 계절성과 달리 출하량이 전분기대비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필두로 원재료 부담이 확대되며 BEP 수준의 수익성을 시현했다.

26년 하반기 및 2027년 추정치 상향 여력에 주목

하나증권은 현재 추정치를 상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26년 하반기에도 메모리 공급 부족이 지속되면서 예상보다 강한 가격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Nvidia의 Vera CPU 별도 판매 및 Vera Rubin 출하 개시로 인해 LPDDR 중심으로 공급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삼성전자보다 원가 구조가 취약한 중화권 업체들이 연초 계획 물량을 하향 조정하고 있어 LPDDR 수요가 축소될 것이라 예상했는데, Nvidia의 LPDDR 구매량이 이를 상쇄하며 공급 부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27년 HBM 계약 가격도 실적 상향의 또 다른 축이다. 일반 DRAM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HBM의 가격 메리트가 퇴색된 가운데, CAPA 잠식 및 수율 등을 감안한 HBM 가격 상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고객사들과의 가격 협상이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되며, 이를 기반으로 2027년 실적을 상향할 수 있다.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중요해지는 실적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 'BUY', 목표주가 48만원을 유지한다. 메모리 부문의 견조한 체력이 확인되었고, 하반기 및 내년 연간 실적 상향도 가능하다. 아울러 실적대비 주가가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에서 주가의 고점 논란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한다. 빅테크 업체들의 Capex 부담으로 GPU 구매가 감소할 가능성도 낮다. 다른 고객 및 소버린 AI 등의 대기 수요가 이를 상쇄할 가능성이 높다. 실적 상향이 진행되는 구간 안에서 주가는 우상향 가능하다는 기존 생각에 변함은 없다.

2026년 07월 08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Not Rated

현재주가(7.7) 7,210원

Key Data

KOSDAQ 지수 (pt)	831.23
52주 최고/최저(원)	8,680/2,960
시가총액(십억원)	148.7
시가총액비중(%)	0.03
발행주식수(천주)	20,628.0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265.0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8
외국인지분율(%)	5.85
주요주주 지분율(%)	
코스맥스엔비티이외 10인	43.95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383	438
영업이익(십억원)	35	43
순이익(십억원)	21	26
EPS(원)	841	1,132
BPS(원)	1,800	3,065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
매출액	328	334	318	287
영업이익	2	12	10	4
세전이익	(5)	0	0	(14)
순이익	(13)	(6)	(6)	(15)
EPS	(634)	(315)	(279)	(729)
증감율	적지	적지	적지	적지
PER	(6.8)	(20.4)	(11.1)	(4.8)
PBR	2.0	3.6	1.1	1.6
EV/EBITDA	12.9	11.0	8.9	11.8
ROE	(30.0)	(17.9)	(10.0)	(34.0)
BPS	2,109	1,777	2,801	2,165
DPS	0	0	0	0

Analyst 박중대 forsword@hanafn.com
RA 양정석 jsyang@hanafn.com**코스맥스엔비티 (222040)****확연히 달라지는 실적****2분기 영업이익 87억원(YoY 245%) 추정**

2분기 연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2%, 245% 증가한 996억원과 87억원 수준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내 법인(매출 YoY 42% 추정) 내수 매출과 수출이 모두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리포데이를 중심으로 기존 톱 고객사 매출이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다이소와 올리브베리 등 신유통 고객사 매출이 신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출(YoY 55% 추정)은 맘스가든/센트룸 등 글로벌 건기식 브랜드들을 중심으로 중국 비중이 80%에 이른다. 미국 공장 스크랩으로 미국 고객사까지 국내 법인에서 생산 대응하고 있는데, 2분기 두개 고객사가 늘었다. 국내 본사의 영업이익률(11.5%)은 1분기 대비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상반기 실적 호조로 상여금(충당금)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영업외로는 미국 공장 매각 대금 등으로 부채(2025년 연결 기준 약 1,590억원)를 줄여나가고 있어 이자비용이 감소하고 있다.

호주 법인 사업 구조조정 효과 본격화

호주 법인은 톱 고객사 주문이 크게 증가하면서 YoY 57%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 제품 볼륨 증가는 물론, 신제품 론칭이 본격화되는 시기로 상품 믹스 개선 효과도 작용했다. 스위스(Swisse) 제품이 대부분인데, 하반기부터는 신규 고객사 매출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호주 법인은 생산공정을 비롯 사업구조 개선으로 QoQ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모습이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 법인은 판매 법인으로 대부분 매출이 연결 조정으로 상쇄된다. 미국 법인은 전년도 2분기까지 공장 생산이 있었기 때문에 베이스가 높다.

업황 개선+사업 구조조정 효과로 확연히 달라지는 실적

코스맥스엔비티는 국내외 건기식 시장 변화, 즉 국내 건기식 유통 시장 확대와 중국 건기식 해외 직구 확대에 최대 수혜 업체이다. 미국 법인 구조조정을 완료하고, 호주 법인 생산 공정을 크게 개선한 가운데, 국내외 건기식 ODM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면서 2026년 사업 및 이익 규모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 미국 잔여 공장 1개 매각은 3분기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생산캐파는 확충 계획이다. 부지는 평택에 확보해 놓은 상태이며, 2027년 완공할 예정이다. 현재 주가는 12MF PER 6.4배로 현저한 저평가 상태다.

2026년 07월 08일 | 기업분석_스몰캡_Report

Not Rated현재주가(7.7) **68,500원****Key Data**

KOSDAQ 지수 (pt)	831.23
52주 최고/최저(원)	172,400/39,400
시가총액(억원)	7,355.2
시가총액비중(%)	0.16
발행주식수(천주)	10,737.5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75.8
60일 평균 거래대금(억원)	221.6
외국인지분율(%)	25.29
주요주주 지분율(%)	
성상연 외 5인	22.89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억원)	4,004	4,977
영업이익(억원)	399	614
순이익(억원)	400	529
EPS(원)	3,665	4,838
BPS(원)	30,450	35,896

Stock Price**Financial Data**

(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4F
매출액	2,395	3,050	2,578	3,196
영업이익	153	107	(194)	120
세전이익	168	72	(22)	67
순이익	160	55	(30)	75
EPS	1,689	550	(281)	695
증감률	145.9	(67.4)	적전	흑전
PER	39.0	131.8	(133.5)	85.6
PBR	3.4	2.8	1.5	2.2
EV/EBITDA	5.1	2.6	30.8	4.9
ROE	9.0	2.0	(1.1)	2.8
BPS	19,278	25,993	25,642	26,498
DPS	100	100	100	200



Analyst 한유건 hyg0619@hanafn.com
RA 윤채리 yooncherry@hanafn.com

인텔리안테크 (189300)**견고한 실적 성장 대비 최근 주가 조정은 과도한 수준****북미 팩토리 가동으로 완결된 밸류체인 구축**

인텔리안테크는 7월부터 미국 신규 공장 가동을 시작했다. 이번 미국 현지 진출은 다방면에 걸쳐 동사에게 큰 이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첫번째, 공급망 내재화를 통한 신뢰도 향상이다. 우주산업은 국가별 첨단기술 전략 자산이자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분야다. 따라서 현지 생산 기지 구축은 글로벌 고객사에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두번째, 글로벌 빅테크 및 위성 사업자 수요의 신속한 흡수다. 스페이스X, 원웹, 아마존, AST스페이스모바일 등 글로벌 위성 통신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 오퍼레이터를 대다수가 미국에 밀집해 있다. 이번 진출로 고객사와 인접한 현지에 대형 게이트웨이를 신속하게 생산 및 테스트 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특히 수출이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동사로서는 물류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글로벌 위성 통신 투자 시장 사이클에 기민하게 대응 할 수 있는 기동성까지 갖추게 된다. 세번째는 리드타임의 단축과 품질 대응(A/S포함) 능력 향상이다. 현지 생산을 통해 제품 납기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어두고, 고객 요구사항 및 A/S 요청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처럼 완결성 높은 밸류체인 구축은 민간 게이트웨이 공급에 그치지 않고, 향후 현지 방산 시장 진출 및 장기 공급 계약 수주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전략이 될 전망이다.

비수기를 잇은 물량 출하 3분기에도 이어져

2~3분기 흐름은 긍정적이다. 우선 2분기에는 1) 고객사 Company A사항 매출 인식이 안정적으로 전개되었으며, 2) 차세대 전술 터미널 맨팩의 출하 역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방산항 맨팩 물량의 출하 증가는 동사의 전체 제품 포트폴리오 Mix와 수익성을 동시에 개선시킬 핵심 요인이다. 2025년 전체 매출에서 군용 맨팩이 차지한 비중은 9%에 불과했으나, 2026년에는 약 15%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장세는 3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지속될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3분기는 계절적 비수기에 해당하지만, 군용 맨팩의 출하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AST스페이스모바일항 게이트웨이 개발 수주 건의 매출 인식과 더불어 Spot 물량이 추가되고 있다. 계약 형태 또한 과거의 단기 계약 중심에서 중장기 대규모 수주로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주항공, 방산, 민항기 분야로 품팩터 확장은 향후 동사의 현금흐름 개선을 견인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대 이상의 펀더멘털 유지

현재까지 인텔리안테크의 펀더멘털 측면에서 리스크 요인들은 제한적이다. 오히려 안정적인 제품 출하와 비용 통제가 지속되면서, 올해 전반적으로 기대 이상의 호실적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북미 신규 공장의 본격적인 가동은 중장기적으로 북미 시장 내 새로운 영역 개척과 신규 고객사 확보에 청신호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26년 예상 매출액은 3,867억원(YoY+21.0%), 영업이익 350억원(YoY+192.5%, OPM 9.0%)으로 기존 추정치를 유지하며, 최근 주가 조정은 과도한 수준으로 바텀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6년 7월 8일 | 기업분석_Company Memo

BUY (유지)

목표주가(12M) 530,000원
현재주가(7.07) 33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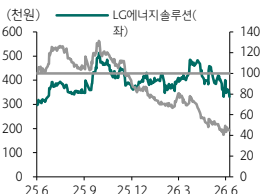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7,656.31
52주 최고/최저(원)	514,000/305,000
시가총액(십억원)	77,688.0
시가총액비중(%)	1.24
발행주식수(천주)	234,000.0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520.8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219.8
외국인지분율(%)	5.53
주요주주 지분율(%)	
LG화학	79.38
국민연금공단	6.13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30,483.9	39,372.7
영업이익(십억원)	1,174.0	4,036.3
순이익(십억원)	160.3	2,595.2
EPS(원)	(1,548)	5,630
BPS(원)	86,273	91,322

Stock Price



Financial Data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25,619.6	23,671.8	28,960.0	30,624.1
영업이익	575.4	1,346.1	728.5	3,083.8
세전이익	348.9	414.1	(178.2)	2,788.7
순이익	(1,018.7)	(1,072.8)	(329.2)	2,055.0
EPS	(4,354)	(4,585)	(1,407)	8,782
증감율	적전	적지	적지	흑전
PER	(79.93)	(80.37)	(251.95)	40.37
PBR	3.86	4.27	4.17	3.78
EV/EBITDA	48.47	34.34	36.75	27.09
ROE	(4.93)	(5.19)	(1.64)	9.83
BPS	90,240	86,391	84,985	93,767
DPS	0	0	0	0



Analyst 김현수 hyunsoo@hanafn.com
RA 홍자원 jiwonhong@hanafn.com

LG에너지솔루션 (373220)

하반기 회복세 지속 전망

2Q26 Review : 3개 분기 만의 영업이익 흑자전환

2Q26 잠정실적은 매출 7.6조원(YoY +25%, QoQ +15%), 영업이익 1,133억원(YoY -77%, QoQ 흑자전환)으로, 컨센서스(영업이익 1,883억원)를 하회했다. 매출은 얼티엄셀즈 가동 중단 영향이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ESS 및 테슬라량 원형전지 출하 증가에 힘입어 전분기 대비 증가했다. 영업이익률은 1.5%로 전분기 대비 +4.7%p 상승했다(AMPC 포함 분기 영업이익률 추이: 4Q25 -2.0%, 1Q26 -3.2%, 2Q26 1.5%). 영업이익은 컨센서스와 하나증권 추정치(2,017억원)를 모두 크게 하회했는데, 당초 2분기 중 반영 예상됐던 북미 JV 보상금 수취가 3분기로 이연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관세 환급 비용이 약 1,000억원 반영된 것을 감안하면 보상금 이연 외에 ESS 고정비 부담 증가 등 추가 비용 이슈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ESS 출하 증가에 힘입어 미국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 금액은 전분기 대비 +27% 증가(2,410억원)했다. AMPC 발생 금액을 배터리 생산량으로 환산하면 약 4.6GWh 규모다. AMPC 포함 영업이익률은 3개 분기 만에 플러스 전환했으며(4Q25 -2.0%, 1Q26 -3.2%, 2Q26 1.5%), AMPC 제외 영업이익률은 -1.7%로 3개 분기 연속 개선됐다(AMPC 제외 분기 영업이익률 추이: 4Q25 -7.4%, 1Q26 -6.1%, 2Q26 -1.7%).

하반기 전기차 배터리 출하 회복 전망

2025년 EV 배터리 셀 생산은 전기차 대수 기준 약 30만대 분량으로 추정된다. 2025년부터 2Q26까지 누적 GM 전기차 판매는 약 23만대 수준이므로, 고객사 내 배터리 재고가 약 7만대 규모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GM의 월평균 전기차 판매가 1만대 수준이므로 3분기 이후에는 배터리 재고가 상당 부분 소진되며 4분기 중 얼티엄셀즈 본격 가동 재개될 것으로 판단한다. ESS 출하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EV 출하도 회복되며, 매출 성장과 AMPC 수취 규모 역시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과매도 구간 진입, 비중 확대 권고

ESS 산업 특성상 하반기로 갈수록 프로젝트 발주가 집중되는 만큼 ESS 출하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한다. 재생에너지+ESS 조합 확대와 AI 데이터센터 중심의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ESS 투자 역시 중장기 수요를 뒷받침할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5월 LG에너지솔루션의 유럽 전기차 배터리 출하는 YoY +22% 증가하며 3개월 연속 +20%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테슬라의 유럽 판매 호조와 GM의 Re-stocking 수요를 감안하면 하반기 EV 배터리 출하 역시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한다. ESS와 EV 모두 출하 증가가 기대되는 가운데 현재 시가총액은 70조원 중반까지 하락하며, 2028년 예상 지배주주 순이익 기준 P/E 24배에 거래되고 있다. 목표 시가총액 124조원(2028년 예상 지배주주 순이익 3.1조원, 상장 이후 평균 24M Fwd P/E 40배 적용)을 감안하면 현재 주가는 과매도 국면이라고 판단한다. 테슬라량 출하 증가, 하반기 GM량 출하 회복, ESS 출하 증가 및 수익성 개선 고려할 때, 현 가격에서는 매수로 대응할 것을 권고한다.

2026년 7월 8일 | 기업분석_Earnings Review

BUY (유지)

목표주가(12M) 260,000원
 현재주가(7.07) 189,1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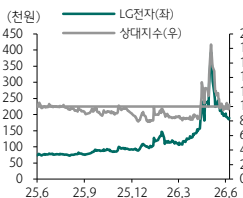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7,656.31
52주 최고/최저(원)	392,500/72,200
시가총액(십억원)	30,801.5
시가총액비중(%)	0.49
발행주식수(천주)	162,884.6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2,859.7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648.2
외국인지분율(%)	28.62
주요주주 지분율(%)	
LG 외 2인	35.27
국민연금공단	6.51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94,061.3	97,790.5
영업이익(십억원)	3,916.3	4,335.7
순이익(십억원)	2,288.2	2,763.2
EPS(원)	10,693	13,037
BPS(원)	144,578	156,994

Stock Price



Financial Data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87,728.2	89,200.9	95,800.8	98,839.5
영업이익	3,419.7	2,478.4	4,557.2	5,310.8
세전이익	1,335.8	1,836.4	3,508.5	4,052.6
순이익	367.5	960.6	2,172.7	2,450.8
EPS	2,032	5,321	12,066	13,610
증감율	(48.45)	161.86	126.76	12.80
PER	41.09	17.27	15.67	13.89
PBR	0.72	0.69	1.27	1.17
EV/EBITDA	3.66	4.22	4.93	4.17
ROE	1.81	4.28	8.57	8.77
BPS	116,348	132,656	149,222	161,383
DPS	1,000	1,350	1,450	1,450



Analyst 김민경 minkyung.kim@hanafn.com

LG전자 (066570)

하반기 신사업 모멘텀 기대

2Q26 Review: 관세 환급 효과 제외해도 호실적

연결기준 매출 23조 8,297억원(YoY +14.9%, QoQ +0.4%), 영업이익 1조 5,788억원(YoY +146.9%, QoQ -5.7%, OPM 6.6%)을 기록했다. 2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했는데 관세환급 효과, 연결자회사인 LG이노텍의 영업이익 호조 및 MS 부문의 수익성 호조가 주 요인이다. 별도기준 매출 18조 5203억원(YoY +9.3%, QoQ +1.3%), 영업이익 1조 3511억원(YoY +117%, QoQ -2%, OPM 7.3%)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HS 부문은 관세 효과를 제외해도 webOS, 구독, 온라인 판매 등 고수익 사업 매출이 예상대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B2B 매출 확대로 사업부 수익성 개선을 견인했다. MS 부문은 고정비 절감 효과가 지속되는 가운데 스포츠 이벤트로 인한 프리미엄 제품군 수요 확대 및 신흥국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VS 부문은 견조한 실적 흐름이 이어졌으며 ES는 유럽 등 해외시장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판매가 증가했다.

하반기 신사업 모멘텀 기대

하반기 AI 데이터센터용 쿨링 시스템 및 로봇틱스 등 신사업이 구체화되며 주가 상승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센터 쿨링 시스템은 예상대비 수주 잔고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북미 하이퍼스케일러용 쿨 테스트가 막바지 단계에 진입했다. 본격적인 실적 기여는 27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추정된다. 로봇틱스 사업은 빅테크 업체와의 협력 가시화가 기대된다. LG전자는 홈/제조 영역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데이터 팩토리를 구축하는 등 로봇 학습 데이터 확보에 주력하고 있어 향후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 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목표주가 26만원 유지

LG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 BUY, 목표주가 26만원을 유지한다. 개선된 이익 체력을 기반으로 견조한 실적이 지속되는 가운데 신사업 가시화가 주가를 견인할 전망이다. 데이터센터용 쿨링 시스템은 27년 실적 기여가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 실적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나 북미 하이퍼스케일러 수주 가시화는 중장기 성장성에 대한 리레이팅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로봇틱스 또한 액추에이터 양산라인 구축, 데이터 팩토리 내 로봇 학습 데이터 축적 등을 통해 향후 시장 개화 시 사업 확장성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2026년 07월 08일 | 산업분석_Issue Comment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07월 07일

현대차(005380)

BUY | TP 760,000원 | CP 479,500원

기아(000270)

BUY | TP 220,000원 | CP 153,700원

자동차

어질리티 로봇틱스가 SPAC 상장 추진

어질리티 로봇틱스가 기업가치 5조원 규모로 SPAC 상장을 추진 중

어질리티 로봇틱스(Agility Robotics)가 6월 24일 SPAC인 Churchill Capital Corp XI(티커 CCXI)와의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금년 중 나스닥 상장을 추진한다(상장 후 티커 AGLT). 합병 시점의 비상장 기업가치는 25억달러(80%)로 평가받고, Churchill 신탁현금 4.2억달러(14%)와 PIPE 확약금 2.0억달러(6%, Foxconn 등) 총 6.2억달러를 조달하는 것이다. 상장 후 총주식수는 무상주를 포함해 총 3.36억주이고, SPAC의 PIPE 기준가 \$10를 감안하면 총 상장 시가총액은 33.6억달러, 한화로 약 5.1조원(환율 1,529원 기준)인 것이다.

어질리티 로봇틱스 및 휴머노이드 로봇인 디짓 모델에 대한 소개

1) 어질리티 로봇틱스 소개: 어질리티 로봇틱스(Agility Robotics)는 미국 오리건주 세일럼 소재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사인데, 2015년 오리건주립대 로봇연구소에서 분사해 설립되었다(초기 DARPA 자금). 2족보행 연구 플랫폼 Cassie에서 출발해 현재 2족보행 산업용 휴머노이드인 Digit의 상업화를 진행 중이다. 세일럼에 위치한 자체 생산시설 RoboFab은 연간 최대 1만대를 생산할 수 있다. 주요 고객사들은 Schaeffler, GXO, Toyota Motor Manufacturing Canada, Amazon, Mercado Libre 등이다(2026년 5월 기준 9개 고객사 시설, 누적 6.5만 가동시간). 투자자로는 NVIDIA, Amazon, SoftBank, Schaeffler, Foxconn 등이고, 창업 이래 누적 조달 자본은 3.9억달러 이상이다. 2024년/2025년 기준 영업이익은 각각 -0.71억달러/-1.11억달러를 기록했다(적자 중 R&D 비용 비중이 70%).

2) 디짓 모델: 디짓(Digit)은 제조/유통/물류 현장 내 반복적 육체노동을 대체하는데 특화된 다목적 휴머노이드이다. 기존 v4 모델은 현재 세플러 공장에 투입되어 테스트 중인데, 최대 35파운드(약 16kg)를 운반하고 4시간 가동 후 자율 충전이 가능하다(최대 16시간). 하반기 출시 예정인 v5는 적재용량 최대 50파운드(약 22kg), 가동시간 최대 22시간, 최대 수직도달거리 7.2ft(약 2.2m) 등 v4 대비 30~40% 향상될 것으로 예고되었다. NVIDIA의 로봇틱스 안전 플랫폼 'Halos for Robotics'의 최초 출시 파트너이고, 안전장벽 없이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하는 '협력적 안전성(cooperative safety)'을 핵심 특징으로 한다. AI로는 인지/판단/계획 등 Semantic AI에서는 NVIDIA 및 Google DeepMind와 제휴하고, 행동/제어 등 Physical AI에서는 자체 기술을 활용한다. 사업 모델은 RaaS(구독)와 Ownership(구매+SW/유지보수)의 두 방식인데, 어질리티는 5월 기준 v5에 대한 다년 계약 수주가 3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재료비(BOM, Bill of Material)은 12.5만달러 정도이고, 연간 1만대 생산할 경우 5만달러 이하로 기대 중이다.

유니트리와 더불어 어질리티의 상장은 로봇 업종의 Valuation 벤치마크로 작용

중국 유니트리의 상장(3Q, 상장 시가총액 10조원)과 미국 어질리티의 SPAC 합병(4Q, 합병 시가총액 5조원)은 글로벌 비상장 로봇 Valuation의 벤치마크가 된다. 상장 후 주가 흐름에 따라 '(1) 추가 강세: 로봇 Valuation의 이벤트성 촉매, (2) 상장 시가총액 유지: 낙관적 로봇 Valuation에 대한 압박, 프리미엄 논거 필요' 등 변동성 요인이 될 것이다.



Analyst 송선재 sunjae.song@hanafn.com
RA 박태웅 taewoongpark@hanafn.com

2026년 7월 8일 | 산업분석_Earnings Preview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J ENM(035760)

BUY | TP 53,000원(하향) | CP 32,900원

스튜디오드래곤(253450)

BUY | TP 37,000원(하향) | CP 23,100원

SBS(034120)

BUY | TP 18,000원(하향) | CP 12,490원

*CP 2026년 7월 7일

미디어

업황의 바닥이 다가오고 있다

목표주가 하향하나 JTBC 이슈 반사 수혜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

TV광고는 또 한번의 -20% 내외 혹은 16개 분기 연속 하락하는 업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JTBC 이슈로 TVN/SBS 등은 반사 수혜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하반기에 낮은 한 자릿수의 역성장만 나타난다면 업황의 저점도 확인될 것이다. 바닥이 다가오고 있음에 긍정적인 상황이지만, 개별 주가 관점에서 접근하면 CJ ENM은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넷마블 지분에 대한 판단 부재와 티빙-웨이브의 해결되지 않는 합병 이슈가 부담이다. 스튜디오드래곤은 상당한 저평가 구간에 있다고는 판단하나, CJ ENM의 기업가치를 뛰어넘을 수 있는 자체적인 모멘텀 부재로 어쩔 수 없이 주가가 연동될 가능성이 높다.

CJ ENM: 2Q 예상 OP 313억원(+9%)

CJ ENM의 2분기 예상 매출액/영업이익은 각각 1.3조원(+2% YoY)/313억원(+9%)으로 컨센서스(340억원)에 부합할 것이다. 부문별 예상 영업이익은 미디어플랫폼이 71억원(흑전)으로 TV광고가 -20% 수준으로 부진할 것이나 KBO 시즌을 맞아 티빙의 고성장으로 구독/광고/해외 판매 모두 호조를 보이며 선방할 것이다. 정보유출 이슈는 하반기에 비용으로 반영될 것으로 가정했다. 영화/드라마는 영화 편성 부재와 스튜디오드래곤의 호조에도 피프스 시즌의 편성 부재로 -110억원 내외로 전망된다. 국내 영화 라인업은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으며, 피프스 시즌의 연내 편성 추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음악은 Kcon 재팬과 ZB1, 모뎃세이 등이 컴백했으나 신규 그룹의 제작비 등으로 127억원(-26%)으로 예상보다 부진할 것이다. 커머스는 수익성에 집중하면서 235억원(+10%)으로 추정된다. 넷마블과 스튜디오드래곤의 지분 가치 하락을 반영하여 SOTP 기준 목표주가를 53,000원(-24%)으로 하향한다.

스튜디오드래곤: 2Q 예상 OP 142억원(흑전)

스튜디오드래곤의 2분기 예상 매출액/영업이익은 각각 1,423억원(+24% YoY)/142억원(흑전)으로 컨센서스(136억원)에 부합할 것이다. 방영 회차는 77회(TV 50회, OTT 27회)로 전년 동기(36회) 대비 증가했는데 <은밀한 감사>, <유미의 세포들3>, <취사병 전설이 되다> 등이 반영되었다. 선 판매는 아마존향으로 6회로 부진하나, <은밀한 감사>의 해외 판매 호조와 1분기 대작 부재에 따른 제한적인 상각비 이슈로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이다. 하반기에도 편성은 상반기 대비로는 부진하나 <천천히 강렬하게> 등과 같은 텐트폴이 있어 실적 선방할 것이다. 다만, 주가는 모회사의 시가총액이 주가의 상단으로 작용하면서 2027년 예상 P/E 15배의 상당한 저평가에도 홀로 상승하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한다. 2027년 예상 EPS에 목표 P/E 25배(기존 33배)를 적용해 목표주가를 37,000원(-23%)으로 하향한다.



Analyst 이기훈 sacredkh@hanafn.com
RA 김현수 hjunsookim@hanafn.com

SBS: 2Q 예상 OP -8억원(적전)

SBS의 2분기 예상 매출액/영업이익은 각각 2,437억원(-9% YoY)/-8억원(적전)으로 컨센서스(55억원)을 하회할 것이다. 별도 TV광고는 -16%로 4~5월에 선방했지만 6월 월드컵 영향을 피할 수는 없어 예상보다 부진했다. 다만, 7월부터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선거 관련 비용이 25억원 정도 반영되었으며, 콘텐츠 제작비 절감도 크지 않았다. 하반기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으나 JTBC 이슈의 반사 수혜도 있을 수 있고, 4분기 지상파 일 총량제 확대(17% → 20%) 등 광고 규제 완화 영향도 더해질 것이다. 드라마 <김부장>의 폭발적인 흥행도 긍정적이다. 실적 하향에 따른 EPS 하향으로 목표주가를 18,000원(-10%)으로 하향하지만, 업황의 저점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2026년 7월 8일 | 산업분석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7월 7일

대한항공(003490)

BUY | TP 38,000원 | CP 29,150원

진에어(272450)

BUY | TP 7,000원 | CP 5,650원

운송

6월 인천공항 수송실적: 3분기는 맑음

6월 인천공항 여객수송실적 599만명(+1% (YoY))

2026년 6월 인천공항 여객수송실적은 전년 동월 대비 1% 증가한 599만명을 기록했다. 유류비 증가로 인한 동남아 위주의 감편을 감안하면 양호한 성적표이다. 일본/중국/동남아 노선 여객 수송량은 +7%/+17%/-17% (YoY) 변동했고, 미주/유럽 노선은 10%/7% 증가했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이 7%/3% (YoY) 증가했고, 제주항공/진에어/티웨이항공은 +2%/-12%/-23% 변동했다. 6월 환승객은 32% (YoY) 증가한 75만명(환승 여객 비중 12.5%)을 기록하며 전쟁 이후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6월 인천공항 화물수송실적 26.2만톤(+5% (YoY))

6월 인천공항 화물수송실적은 5% (YoY) 증가한 26.2만톤을 기록했다. 주요 루트인 중국/동남아/미주/유럽 지역 수송량이 +8%/-1%/+6%/+7% (YoY) 변동했는데, 반도체 수출 호조와 전쟁 이후 환적 화물 증가 등 요인이 화물 물동량에 긍정적으로 작용 중이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이 1% (YoY) 증가했고, 아시아나항공은 73% 감소했다.

이제는 유류할증료 인하 구간

다사다난한 2분기가 지나갔다. 항공사의 2분기 유류비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수준으로 추정되며, 5월 유류할증료는 3월 대비 6배 수준을 기록했었다. 그럼에도 수요가 견조했다. 2분기 인천공항 여객량은 6% (YoY) 증가했고, 6월에도 동남아 노선을 제외하면 일본/중국/미주/유럽 노선은 모두 여객량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추가적으로 8월 유류할증료(6월 16일~7월 15일 간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을 기반으로 계산)는 4월 미만 수준으로 예상되며 전쟁 발발 이후 최저 수준으로 회귀할 예정이다. 최고점이었던 5월 발권 유류할증료 대비 25만원(최장거리 노선 기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항공 수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3분기부터는 전쟁 이후 발권된 티켓들이 매출로 반영되고, 항공 유가도 전쟁 이전 대비 상승폭이 30% 수준에 불과하다. LCC도 3분기부터는 BEP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하고, FSC의 경우 3분기 증익을 예상해봐도 좋은 수준이다. 항공주 전반으로 2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턴어라운드 예정이고, 항공화물 등 요인으로 실적 추정치 상향 여지가 더 높은 대한항공 위주의 매수를 추천한다.



Analyst 안도현 dohyunahn@hanafn.com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전자 (005930.KS)	7/6	309,500	296,000	-4.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삼성물산 (028260.KS)	7/6	433,500	424,500	-2.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 수주 5조원·수주잔고 31.7조원으로 하이테크/데이터센터 중심 수주 모멘텀 지속 원전/SMR 수주 추진, 태양광 파이프라인 19GW 및 2030년 미국 5GW 운영자산 목표
KB금융 (105560.KS)	7/6	170,100	173,200	1.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2분기 추정 순익 1.97조원으로 2조원에 육박해 지주사 설립 이후 분기 최대 순익 예상 홍콩 ELS 과징금 이슈 해소로 주주환원 확대 및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한화에너지스페이스 (012450.KS)	7/6	1,175,000	1,122,000	-4.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약 39.7조원 규모의 지상방산 수주잔고와 연내 수주 파이프라인 구체화 기대 7월 미 육군 자주포 현대화 사업 시제계약자 선정 기대감 부각
삼성중공업 (010140.KS)	7/6	23,500	22,450	-4.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가 LNG선 매출 비중 확대와 저가 물량 감소로 실적 개선세 본격화 수주 시점 구분에 따른 상선 건조 Mix, 연중 지속적으로 개선될 전망
삼양식품 (003230.KS)	7/6	1,111,000	1,222,000	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주·중국·유럽 중심의 해외 매출 고성장과 밀양2공장 가동을 상승으로 실적 성장 기대 중국 신공장 가동 및 추가 생산시설 검토로 해외 비중 확대와 단기 실적 모멘텀 부각
키움증권 (039490.KS)	7/6	348,500	346,000	-0.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증시 거래대금 확대의 직접 수혜로 1분기 연결 지배주주순이익 4,764억원 기록 브로커리지 수수료와 신용융자 이자수익 증가가 실적을 견인
코스맥스 (192820.KS)	7/6	168,300	183,000	8.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선크림 성수기 효과와 중국·미국 법인 성장세가 맞물리며 실적 모멘텀 확대 기대 미국 법인 흑자전환 가능성과 K-뷰티 기반 신규 수주 확대 기대
이수화학 (005950.KS)	7/6	14,120	12,800	-9.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유일 NP-LAB 일관 생산 체계 기반으로 수급 타이트 구간에서 반사이익 기대 황화리튬 사업 성장성 부각에 따른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This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2.04%	+3.33%p	+74.41%	+6.26%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증가기준 -15%선 적용

증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K하이닉스 (000660.KS)	7/6	2,425,000	2,201,000	-9.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2Q26 Preview 매출액 87.1조원(YoY +292.0%), 영업이익 67.6조원(YoY +638.0%) 전망 빅테크 중심의 HBM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대규모 CAPEX가 동반되며 HBM 수혜 전망
삼성증권 (016360.KS)	7/6	119,100	115,600	-2.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증시 거래대금 확대에 따른 브로커리지 수익 증가로 중심 실적 모멘텀 지속 기대 높은 배당성향과 주주환원 기조에 더해 리테일 고객자산 확대가 밸류에이션 재평가 요인
삼성전자 (005930.KS)	7/1	334,000	296,000	-11.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삼성생명 (032830.KS)	7/1	401,000	375,000	-6.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보험 판매 확대와 신계약 CSM 증가로 보험 본업의 이익 체력 개선 삼성전자 배당수익 및 자회사 연결 손익 증가로 투자손익 크게 개선
삼양식품 (003230.KS)	7/1	1,119,000	1,222,000	9.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주-중국-유럽 중심의 해외 매출 고성장과 밀양2공장 가동을 상승으로 실적 성장 기대 중국 신공장 가동 및 추가 생산시설 검토로 해외 비중 확대와 단기 실적 모멘텀 부각
신세계 (004170.KS)	7/1	755,000	680,000	-9.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화점 본업의 외국인 매출 확대와 리뉴얼팝업 효과로 매출 및 영업이익 개선 흐름 지속 면세점 흑자 전환과 신세계인테리어셔널 등 자회사 수익성 회복으로 실적 개선 가시성 상승
한국콜마 (161890.KS)	7/1	99,500	115,100	15.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디 브랜드의 글로벌 수출 확대, 선케어-스킨케어 주문 증가로 ODM 본업 성장성 강화 국내 법인 고성장과 고마진 제품 믹스 개선을 바탕으로 실적 개선 기대
리가켄바이오 (141080.KQ)	7/1	149,900	136,200	-9.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트너들의 임상개발 진전 및 자체 보유 파이프라인의 임상진입, 기술수출 기대 2027년까지 신약 ADC 파이프라인에서 약 10개의 IND 신청 예정

증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3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8.12%	+1.42%p	+49.10%	-19.08%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5%선 적용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A반도체 (395160)	2026.02.27	29,560	46,970	5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한미반도체 등 국내 AI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 온디바이스 AI 확산과 AI 서버 수요 폭증으로 인한 메모리 수급 불균형 속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가치 재평가 기대
WON 초대형IB &금융주 (0154F0.KS)	2026.02.24	15,160	12,995	-1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및 밸류업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대형 증권사와 주요 금융주 등 핵심 금융주에 집중 투자하는 패시브 ETF 초대형 IB의 구조적 성장성과 금융주의 안정적인 배당 매력을 동시에 추구.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투자, KB금융, 신한지주 등 국내 금융 섹터를 대표하는 우량 종목들로 구성
에셋플러스 코리아 대장장이액티브 (442090.KS)	2026.02.24	25,365	30,975	2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방 산업의 경쟁 심화 속에서 부품, 장비, 소재 등 후방 산업(소부장) 내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장장이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액티브 ETF 반도체, 방산, 조선 등 한국의 핵심 수출 산업 밸류체인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강소기업들을 선별 편입. 국내 주요 수출주들의 실적 개선과 맞물려 시장 지수 대비 추가적인 수익 창출 기대
PLUS 글로벌방산 (496770.KS)	2025.03.04	13,000	19,190	4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과 유럽의 주요 방산기업들을 편입하는 종목.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디펜스,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스웨덴의 사브 등이 포트폴리오에 포함 트럼프 행정부의 NATO 방위비 압박으로 주요국들의 국방비가 증액되는 추세.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적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MH (글로벌 반도체)	2025.11.24	339.12	604.30	7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던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비된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
DRAM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2026.6.22	80.72	64.76	-1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혁명 및 대규모 데이터 처리에 필수적인 컴퓨터 메모리 및 스토리지 밸류체인 관련 글로벌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한 순수 메모리 테마 ETF 광범위한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기존 ETF와 달리, HBM(고대역폭메모리) 및 차세대 DRAM 시장을 선도하는 핵심 제조사에만 집중 투자하여 차별화된 고성능 모멘텀 수혜 기대
AIRR (미국 중소형 산업재)	2026.6.22	133.25	126.97	-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내 매출 비중이 높은(75% 이상) 중소형 제조업 및 산업재 관련 기업들로 구성 되어 실질적인 미국 제조업 부흥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ETF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리쇼어링(제조업 본국 회귀) 현상 가속화와 관세 구조 변화 등 트럼프 정책의 지속성 하에서 실질적인 인프라 건설, 기계, 엔지니어링 밸류체인 수혜 기대
SPHQ (미국 대형 퀄리티 주식)	2026.3.23	75.80	88.51	1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익성(ROE), 이익의 질(미결제영업자산 변동), 재무 건전성(레버리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S&P500 내 최상위 우량주 100개를 선별해 투자 매크로 불확실성 및 실적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탄탄한 펀더멘털을 보유한 기업에 집중해 지수 대비 견고한 하방 경직성과 장기적인 초과 수익 추구

주: 기준가는 편입일 당일의 종가, 전일증가는 한국 시장 3시 30분 기준.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7.5	7.6	7.7	7.8	7.9	7.10	7.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6월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 (51.2, 이전치 51.3) 미국 6월 ISM 서비스지수 (54.0, 이전치 54.5) 유로존 5월 소매판매 (1.6%, 이전치 1.0%) 유로존 5월 PPI (5.8%, 이전치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5월 선행지수 (116.8, 이전치 116.1) 일본 5월 동행지수 (118.5, 이전치 118.1) 미국 5월 수출 (E -3.5%, 이전치 2.6%) 미국 5월 수입 (E 2.1%, 이전치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5월 BoP 경상수지 (E --, 이전치 \$28292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6월 공작기계 수출 (E --, 이전치 37.5%) 미국 FOMC 회의록 공개 미국 6월 기존 주택매매 (E 0.9%, 이전치 3.2%) 중국 6월 PPI (E 4.1%, 이전치 3.9%) 중국 6월 CPI (E 1.1%, 이전치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6월 PPI (E 6.8%, 이전치 6.3%) 미국 6월 기존주택매매 (E 0.9%, 이전치 3.2%) 	
7.12	7.13	7.14	7.15	7.16	7.17	7.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5월 광공업생산 F (E --, 이전치 -1.7%) 중국 6월 수출 (E 18.2%, 이전치 19.4%) 중국 6월 수입 (E 24.2%, 이전치 27.4%) 미국 6월 CPI (E 3.9%, 이전치 4.2%) 미국 6월 근원 CPI (E 2.9%, 이전치 2.9%) 미국 NFB소기업 낙관지수 (E --, 이전치 9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6월 수입물가지수 (E --, 이전치 24.8%) 한국 6월 수출물가지수 (E --, 이전치 46.9%) 한국 6월 실업률 (E --, 이전치 2.8%) 일본 5월 핵심기계수주 (E --, 이전치 15.6%) 중국 6월 소매판매 (E --, 이전치 -0.6%) 미국 6월 PPI (E --, 이전치 6.5%) 유로존 5월 산업생산 (E --, 이전치 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기준금리 결정 (E 2.75%, 이전치 2.50%) 미국 베이지북 공개 미국 7월 NAHB 주택시장지수 (E --, 이전치 35) 미국 6월 소매판매 (E 0.0%, 이전치 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6월 주택착공건수 (E --, 이전치 -15.4%) 미국 7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 P (E --, 이전치 49.5) 유로존 6월 CPI (E --, 이전치 2.8%) 유로존 6월 근원 CPI (E --, 이전치 2.4%)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